

# 古代 우리나라 帶鉤에 대한 研究

水原大學校 生活科學大 衣類織物學科  
副教授 金 文 子

## 目 次

I. 序 言	2. 棒形 帶鉤
II. 帶鉤의 着用狀態	IV. 結 論
III. 帶鉤의 樣式	참고문헌
1. 動物形 帶鉤	ABSTRACT

## I. 序 言

우리 나라 古代服飾에서 후대의 옷고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帶인데 중국식의 大帶와는 달리 胡服系의 革帶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革帶는 원래 동물형의 金屬製 장식이 달려있어 앞에서 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帶鉤라 한다.

帶鉤는 三國時代 古墳出土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帶전체가 금속으로 되어있는 과대와는 달리 지금의 Buckle과 같이 帶의 연결부위만 금속제라 되어있어 구별되며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 人物圖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布帛帶와도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帶鉤는 스키타이제 복장과 함께 들어와 착용되고 후에 점차 장식화 되면서 腰佩가 달린 과대류로 변화가고 중국식 복장의 전래로 布帛帶類로 함께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에 들어와 요패가 달린 본격적인 과대류로 변하기 이전에 Buckle의 역할을 한 帶金具類중에서 주로 순수한 형태의 帶鉤에 대

하여 주로 고분 출토품들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 洋式 및 源流를 考察하고자 한다.

## II. 帶鉤의 着用狀態

帶鉤는 革帶의 끝에 달려있어 다른 쪽 端의 구멍 속에 꽂게 되어 있는데 帶鉤에 사용되는 동물형양식은 스키타이제 장식의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스키타이제복장의 전래로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같은 帶鉤의 사용은 중국에 있어서도 胡服과 함께 들어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王國維의 『胡服考』에 「古革帶常用鉤」라 하여 漢대에 항상 帶鉤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sup>1)</sup> 또한 史記 齊太公世家에 “...射中小白帶鉤 小白詳死...”라 하여 帶鉤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sup>2)</sup>

한편 趙의 武靈王이 그 신하들에게 하사한 胡服 중에 「黃金師比」가 있는데 이 ‘사비’가 帶鉤에 대

1)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p.134.

2)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1988, p.259.

한 胡語로 알려져 있다.<sup>3)</sup>

또한 유목기마민족중의 하나인 ‘鮮卑’는 그 語源을 몽고어의 Särbe에 두고 있다는 설이 유력한데 이는 騎馬人的 帶鉤를 의미한다고 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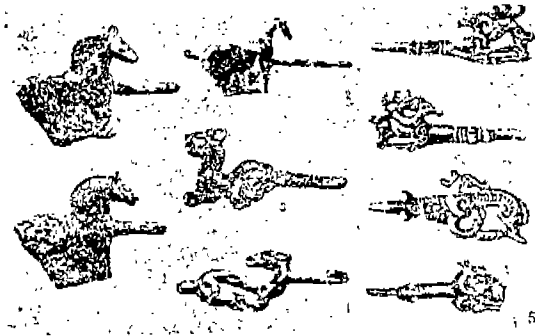
또 한편으로는 ‘鮮卑’라는 이름은 瑞獸장식이 있는 帶鉤를 着用한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만주어의 Sabi[ : 瑞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sup>5)</sup>

이상으로 보면 師比=Särbe=Sabi 로 연결되어 동물형 장식이 붙은 帶鉤가 胡服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이같은 帶鉤의 양식은 {淮南子} 說林訓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鉤는 각각 다르나 그 鉤가 달려 있는 環帶는 동일한 모습이다」<sup>7)</sup>라고 기술하고 있어 帶鉤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帶鉤의 다양한 모습은 유라시아 여러 騎馬民族들의 유물(圖 1)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瑞獸形의 動物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圖 1) 유라시아 騎馬民族 動物形 帶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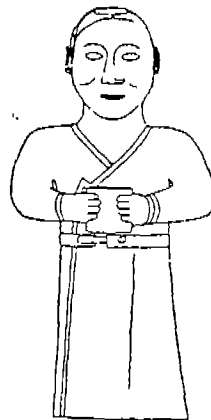
- 1. 日本    2. 韓國    3. 北中國    4. 內蒙古
- 5. 烏拉, 남러시아    <騎馬民族國家>에서

中國에서의 帶鉤의 사용은 戰國時代에 주로 靑銅帶鉤가 유행했으며 玉帶鉤도 있었으며 보통 獸頭가 달려 있었다. 漢代에는 그 사용이 低調해졌으나 金, 銀, 銅, 鐵의 금속외에 玉, 貝, 骨, 琉璃등에 刻, 嵌, 鑲, 錯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우수한 공예품으로 만들어져 착용되고 있었다. 그 형태는 琴形, 棒形, 琵琶形, 匙形, 龍形, 鳥形, 虎形, 小鉤形(圖 2)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8)</sup>



(圖 2) 小鉤形    <世界考古學大系>에서

이같은 帶鉤의 착용 모습은 戰國時代 靑銅俑(圖 3)이나 銅俑에서 볼 수 있으며 스키타이 인물상에서는 帶鉤가 달려 있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혁대를 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많은 動物形帶鉤의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혁대의 매듭은 帶鉤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圖 3) 戰國時代 靑銅俑    <漢代の文物>에서

3) 林巳紘夫,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p.27.

4) 司馬遷太郎, “古朝鮮의 成立”, <新潮古代美術館>, 東京: 新潮社, 1980, p.114.

5) 河內良弘(譯注), <騎馬民族國家>1, 東京: 東洋文庫, 1971, p.181.

6)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1994, p.118.

7) “...滿堂之座 觀鉤各異於環帶一也...”

8) <世界考古學大系> 第7卷 東아시아Ⅲ, 東京: 平凡社, 1966, p.78.

이같은時代に 帶鉤를 매다는 양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목기마민족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특히 동물형양식의 帶鉤는 학자들이 대표적인 스키타이계문물로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帶鉤가 부착된 현대의 착용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앞에 끈을 늘어뜨리는 포백대 외에 매듭을 늘어뜨리고 있지 않은 모습(圖 4)은 帶鉤를 부착한 현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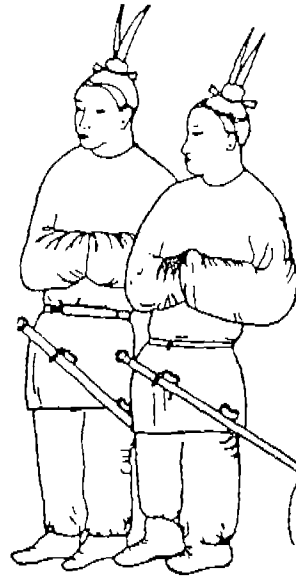


(圖 4) 高句麗 舞踊塚 狩獵圖  
〈韓國美術全集〉4에서

또한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암 宮殿壁畫의 新羅使節로 생각되는 인물(圖 5)들도 이같은 帶鉤가 부착된 현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나라의 動物形 帶鉤는 북방유라시아 대륙의 청동기문화의 영향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적인 동물외장을 하고 있으며 青銅器末期에 출현해서 初期 鐵器時代를 거쳐 古墳時代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9)</sup> 그리고 이같은 사실적인 동물형 帶鉤는 일본에까지 전파되어<sup>10)</sup> 고

대 한일복식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보통 중국 화한 帶鉤형태로 알려져 있는 棒形(또는 琵琶形)帶鉤들도 우리나라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論文에서는 動物形 帶鉤와 같이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대표적인 양식과 개개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圖 5) 아프리카시암 宮殿壁畫의 新羅使節  
〈考古美術〉129, 130合號에서

### Ⅲ. 帶鉤의 樣式

#### 1. 動物形 帶鉤

##### 1) 馬形帶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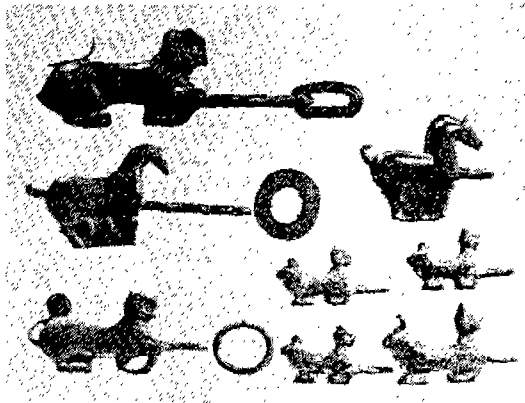
青銅器時代 永川 漁隱洞 出土 馬形帶鉤(圖 6-2)는 청동제로서 팽팽한 체구에 갈기를 세우고 고리

9) 韓炳三(編), 〈韓國文化財大系〉國寶2 古墳金屬Ⅱ, 서울:藝耕産業社, 1986, p.202.

10) 5C, 日本 岡山縣榑山古墳出土 馬形帶鉤(圖 1-1)는 우리나라 尙州出土 馬形帶鉤(圖 6-4)와 거의 동일한 양식이다.

〈世界考古學大系〉第3卷 日本Ⅱ, 古墳時代, 1975, 동경:平凡社, pp.121~22.

를 짧게 잡아매어 말이 가지는 動力感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허리 가슴에 線文帶가 있고 머리에는 革具가 線刻되고 배 밑과 突起 고리에는 단추형 장식 이 있다. 고리 끝에는 둥근 璧形 고리가 원래 모습 대로 남아 있다. 말을 위에서 보면 馬身의 약 3분의 2가 鑄出되었고 3분의 1 부분이 잘리워 나가 편평하게 되고 거기에 臂部 가까이 꼭지가 달려 혁대 끝을 걸도록 되어 있다. 길이는 15.6cm이다.<sup>11)</sup>



(圖 6) 馬形·虎形帶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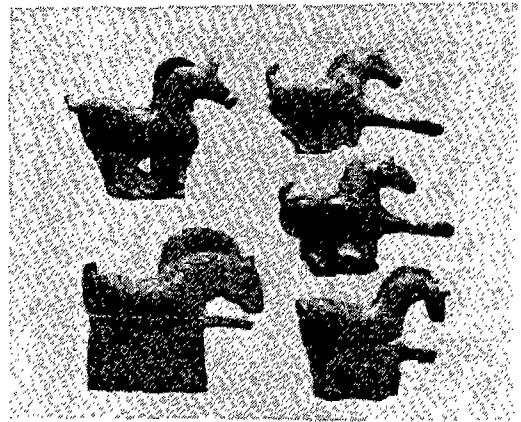
- |   |     |                |
|---|-----|----------------|
| 1 | 4   | 1, 2 永川 漁隱洞 出土 |
| 2 | 5 7 | 3 國立博物館 所藏     |
| 3 | 6 8 | 4 尙州 洛東里 出土    |
|   |     | 5, 6 傳善山       |
|   |     | 7, 8 梨大博物館 所藏  |

〈韓國의 青銅器文化〉에서

송전대 박물관 소장 慶北 尙州출토 銅製 馬形帶鉤 7개<sup>12)</sup>가 있으며,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尙州 洛東里출토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青銅馬形帶鉤 (圖 6-4),<sup>13)</sup> 또한 영남대 박물관 소장 출토지 미 상 青銅 馬形帶鉤는 시베리아로 들어오는 스키타

이 동물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물의 體身에 조각적인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sup>14)</sup>

加耶地域출토의 青銅 馬形帶鉤(圖 7)는 5개인데 나비는 대략 7.6cm~8.9cm정도이며 말영덩이 부분 뒷편에는 가죽띠를 걸기 위한 못대가리가, 앞가슴 쪽에는 띠고리를 걸기 위한 갈고리형 부속이 달려 있다.<sup>15)</sup>



(圖 7) 馬形帶鉤

加耶地域 出土

〈국립진주박물관〉에서

原三國時代 3C경의 유물로 추정되는 青銅 馬形帶鉤가 천안 청당동유적에서 10개 출토 되었는데 나비는 7.5~10.7cm 정도이고<sup>16)</sup> 형태는 圖 6-4와 비슷하다.

## 2) 虎形帶鉤

青銅器時代 永川 漁隱洞出土 虎形帶鉤(圖 6-1)는 꼬리가 사실적으로 등위로 올라가고 허리, 가

11)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1, 原始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80, p.155.

12)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圖版 80-81.

13) 국립중앙박물관(편) 〈韓國의 青銅器文化〉, 서울: 汎友社, 1992, p.112.

14) 영남대학교박물관(편), 〈박물관도록〉, 1982, 圖版14,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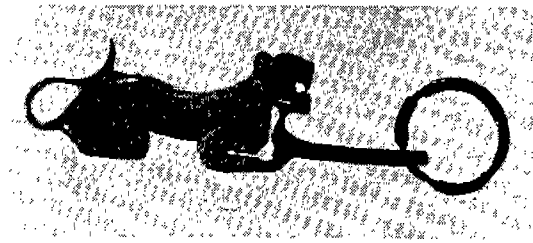
15)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圖版 177, p.149.

16) 국립부여박물관(편),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1993, p.40.

슴의 장식 文帶도 좁아져서 크게 벌린 입의 齒牙形, 위로 볼록한 큰눈과 함께 보다 자연스러운 힘과 감정을 주고 있다. 길이는 1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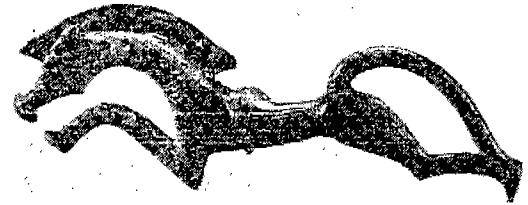
南韓출토의 銅製虎形帶鉤는 앉아 있는 虎形의 가슴에 끝이 꼬무라진 突起를 붙이고 뒷면에는 革帶의 끝을 거는 꼭지를 둔 것으로 호랑이는 꼬리도 四肢도 圖式的으로 표현했고 臀部, 腰部, 어깨에서 가슴, 四肢 그리고 顔面 등을 모두 서로 교차하는 集線文으로 장식하고 있다. 길이는 12.6cm이다.<sup>17)</sup>

青銅器時代 金東鉉所藏의 大邱 飛山洞出土品은 虎像이 입을 벌리고 뒷다리를 쭉그린 형태로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sup>18)</sup> 같은 지역 출토의 湖巖美術館 所藏品(圖 8)도 날카로운 이빨을 강조하고 있다. 國立博物館 所藏 虎形帶鉤(圖 6-3)는 圖 6-1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나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점이 특이하다. 嶺南大 博物館 所藏 虎形帶鉤(圖 6-5, 6-6)는 慶北 善山출토로 전해지고 있으며, 출토지 미상의 梨大 博物館 所藏의 虎形帶鉤(圖 6-7, 6-8)<sup>19)</sup>가 있으나 圖 6-1에 비하면 좀 단순하게 만들어진 편이다.



(圖 8) 虎形帶鉤  
大邱 飛山洞 出土  
(韓國의 青銅器文化)에서

스키타이계 帶鉤로써 圖 6-2의 원형으로 보이는 것은 기원전 1천년 중엽의 유물로 추정되는 Northern Caucasus Koban 무덤 출토 馬形帶鉤(圖 9)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청동계로 길이 12.9cm이며 갈기를 바짝 세우고 질주하는 말의 浮彫像으로 갈기 가장자리와 꼬리에 斜線文이 陰刻되어 있다. 나머지 표면은 평행선과 격자선이 얇게 새겨져 있다. 뒷면에 고리가 달려있어 帶鉤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코카서스 동물양식의 뛰어난 예로 동물 세계중 숭배되는 대상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sup>20)</sup>



(圖 9) 馬形帶鉤  
Northern Caucasus Koban 무덤 출토  
(스키타이 황금)에서

포드르 1세의 시베리아 수집품중 하나인 사키문화에 속하는 B.C 5~4C 유물로 金製 帶鉤(圖 10)가 있다. 이것은 環狀의 浮彫像이 鑄造된 것으로 길게 뻗힌 유연한 몸통이 반원형으로 만곡되어 머리와 꼬리가 맞닿고 있다. 꼬리와 다리는 몸통에 눌러 원의 내부를 채운 정교한 작품이다. 꼬리와 발끝부분, 눈, 귀, 콧구멍과 열린 입은 원래는 嵌玉되어 있었다. 造形上의 기법과 보석세공 기법이 능란하게 결합된 작품이다. 뒷면에는 가죽 띠에 부착하기 위한 고리가 새겨 땀질되어 붙어 있다. 길이 10.9cm, 폭 9.3cm이다. 이같은 環狀의

17) 金元龍(編), Op. cit. p.155.

18) 韓炳三(編), Op. cit. 圖版154, p.225.

19) 국립중앙박물관(편), <韓國의 青銅器文化>, p.112.

20)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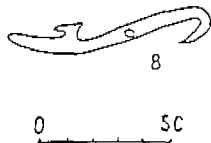
猛獸 모티프는 스키토-시베리아미술에 널리 퍼져 있었다.<sup>21)</sup>



(圖 10) 金製帶鉤  
사키문화 표트르1세의 시베리아 수집품  
<스키타이 황금>에서

## 2. 棒形帶鉤

정백동 92호 무덤 출토품(圖 11)은 갈구리처럼 생긴 결개부분을 새 머리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전반적인 생김새가 앵무새와 비슷하다. 결개부분은 가로자름면이 둥글고 그 반대쪽 끝부분의 밑변은 볼록하며 단추모양의 꼭지가 붙은 옷면은 납작하다. 전체 길이는 7.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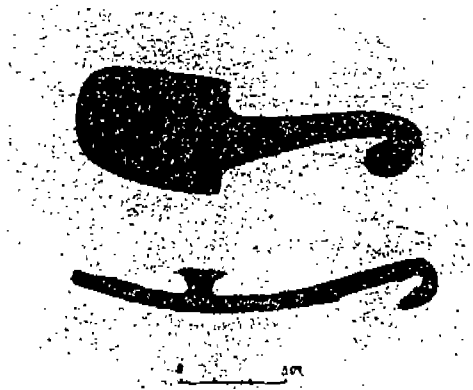


(圖 11) 棒形帶鉤  
정백동 92호 무덤 출토

정백동 58호 무덤 출토품은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한쪽끝은 갈구리처럼 구부러졌고 다른 한쪽끝은 갈구리부분에서부터 약간 구부러지다가 곧게 끝났다. 끝이 곧게 끝난 부분은 갈구리부분보다 넓고 아랫배가 나왔다. 그리고 끝부분 윗쪽에 버섯모양의 꼭지가 있다. 전체 길이는 8cm이다.

정백동 62호 무덤 출토품은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한쪽끝이 구부러져서 길게 되어 있으며 납작한 부분에는 도드라진 꼭지가 있어 구멍에 끼우게 되어 있다. 길이 7cm, 뒤부분의 나비 1.7cm.

정백동 53호 무덤 출토품(圖 12)은 남자의 널안에서 2개가 나왔다.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하나는 청동주조품으로 몸이 길쭉하고 한쪽끝이 구부러졌으며 가운데에 단추모양의 도드라진 결개가 있는 것이다. 크기는 길이 10.2cm, 두께 0.5cm이다. 다른 한개는 帶鉤의 한쪽끝이 구부러지고 단추모양의 결개가 있는 부분은 모가 죽은 방향으로 생겼는데 그 한변의 길이가 4.7cm, 두께 0.5cm이며 전체 길이는 9.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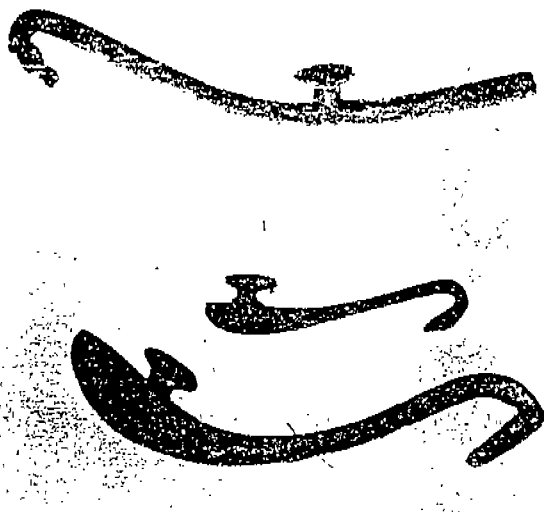


(圖 12) 棒形帶鉤  
정백동 53호 무덤 출토

정백동 37호 무덤 출토품(圖 13)은 남자널안에서와 그 주변에서 3개가 나왔는데 그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며 널안에서 나온 것은 은으로 만들었

21) Ibid. pp.166~67.

며 한쪽끝에는 용머리를 형상한 갈구리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버섯모양의 꼭지가 붙어있다. 길이는 6.5cm이다. 다른 2개의 대구도 그 질과 모양이 앞의 것과 비슷하다.



(圖 13) 棒形帶鉤  
정백동 37호 무덤 출토  
圖 11, 12, 13  
〈고고학자료집〉제5집에서

정백동 3호 무덤 출토품은 한쪽끝은 갈구리처럼 구부러졌고 다른 한쪽끝 부분에는 갈구리와 반대 방향으로 버섯모양의 꼭지가 붙어 있다. 2개중 1개는 좀 길고 가늘며 다른 1개는 짧고 꼭지가 붙은 부분이 넓적하다. 긴 帶鉤의 길이는 9cm, 짧은 帶鉤의 길이는 7.5cm이다.<sup>22)</sup>

정오동 1호 무덤 출토품(圖 14)은 쇠로 만든 것인데 길이 13cm이고 꼬리 부분이 두껍다. 납작한 꼭지가 꼬리끝 가까이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오동 3호 무덤 출토품은 길이 10.5cm인데 아랫쪽으로 4.7cm부분은 나비 2.7cm이며 그 뒷쪽에는 직경 2.2cm의 둥근 못대가리를 만들고 앞면에는 울퉁불퉁하게 돌우 새겼으나 무엇을 형상한 것

인지는 알 수 없다. 거기서 우로 7cm 떨어져서 나비 2.5cm의 끝이 약간 앞으로 향한 날개 모양의 것을 만들었으며 윗부분은 앞으로 굽혀서 갈구리를 만들었다. 보통 帶鉤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것이다.



(圖 14) 棒形帶鉤  
정오동 1호 무덤 출토

정오동 5호 무덤 출토품은 양쪽 끝은 삭아서 없어지고 지금 남은 길이는 6.4cm이다. 뒤쪽이 좀 굽고 앞으로 가면서 가늘어졌다. 뒤쪽 직경은 0.9cm, 앞쪽 직경은 0.6cm인데 가운데 부분에 못대 가리 처럼 생긴 꼭지가 나와 있다. 꼭지대의 길이 0.5cm, 꼭지머리의 직경은 1.1cm이다.

정오동 6호 무덤 출토품(圖 15)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5cm, 넓은면의 나비는 3cm, 꼬리의 굽기는 0.6cm, 꼭지의 나비는 2.5cm이다. 생김새는 날아가는 새의 모양과 같다. 꼬리부분은 새가 목을 길게 빼고 뒤로 돌아보는 것 같은 모습이며 뒷부분은 펼쳐든 날개와 다리를 가슴에 가까이 모은 것 같은 모습이다. 꼬리끝에는 새의 두 눈알을 새겼으며 대의 중심에는 목을 쭉빼고 발버둥치는 듯한 저북이를 형상화 하였다. 오른쪽날개에는 범모양, 왼쪽 날개에는 용을 양각했다. 이같이 이 대구는 청용, 백호, 주작, 현무를 형상하였는데 이런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정오동 7호 무덤 출토품은 청동으로 된 것으로 직경이 2.5cm, 두께가 0.1cm정도의 동이 불룩한 원반 위에 기러기가 두발을 모우고 올라서서 목을 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그 구부러진 목을 걸개로 하였다. 목의 직경은 0.

22) 〈고고학자료집〉 제5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p.6, 37, 41, 32, 28.

4cm, 몸체의 두께는 2.5cm이다. 원반 주위에는 2개의 가는 선을 평행하여 돌리고 그 안에 섬세한 방울 무늬를 양각하고 그 전면에는 괴상한 짐승무늬를 그렸다. 무늬는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섬세하고 생동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당시의 조형예술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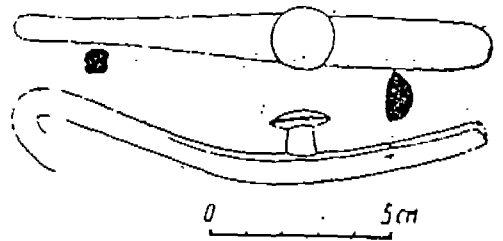
정오동 10호 무덤 출토품은 앉아있는 새를 형상화 한 것으로 뒤부분은 새의 꼬리를 형상화 하였으며 앞부분은 굽혀서 갈구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눈과 입을 가진 뱀머리를 양각으로 새겼다. 대구의 밑면은 납작하고 자름면은 반달형이다. 앞으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졌으며 그 자름면은 원형이다. 길이 15.5cm, 나비는 앞 뒤가 서로 다른데 뒤쪽은 1.6mm, 앞쪽은 1.5mm이다. 대구의 중심에서 직경 1.5mm, 높이 8mm의 납작한 단추모양의 꼭지를 만들었다.



(圖 15) 棒形帶鉤  
정오동 6호 무덤 출토  
圖 14, 15  
〈고고학 자료집〉제 6집에서

정오동 11호 무덤 출토품은 귀틀 무덤에서 흔히 보이는 帶鉤로서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지금 걸개 부분과 끝부분이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고 다만 단추형의 꼭지부분만이 남아 있다. 지금 남은 길이는 6.5cm, 단추형의 꼭지길이는 0.1cm이다.<sup>23)</sup>

태성리 6호 무덤 출토품(圖 16)은 묘광의 중심부에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서 놓여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체의 허리가 놓여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이 대구는 청동제로 두개 부분으로 부러져 있었는데 합쳐서 복원하면 길이는 13cm이고 그 한끝은 갈구리로 되어 있으며 이 갈구리 끝과 반대 방향으로 버섯모양의 고리개가 붙어 있었다.<sup>24)</sup>



(圖 16) 棒形帶鉤  
태성리 6호분 무덤 출토  
〈유적발굴보고〉제 5집에서

이외에 청동기가 소멸하고 철기가 유행하던 시대의 유적인 평양 上利출토 銅製帶鉤片<sup>25)</sup>에도 이 같은 棒形帶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낙랑시대의 유물에 흔하게 보이는 棒形帶鉤는 한반도 남쪽지역에서는 흔하게 보이지 않으나 원삼국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昌原 茶戶里 出土品(圖 17)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sup>26)</sup> 앞의 낙랑지역 출토품들과 거의 同形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중국화된 棒形帶鉤도 일부에서는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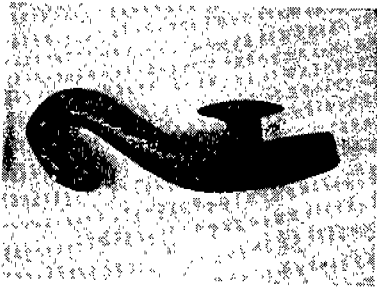
23) 〈고고학자료집〉 제6집,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15, 33, 45, 64, 77, 83, 126, 133.

24) 〈유적발굴보고〉 제5집,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 pp.15~17.

25) 국립중앙박물관(편), 〈韓國의 靑銅器文化〉, pp.46~47.

26) Ibid, p.63.





(圖 17) 棒形帶鉤  
昌原 茶戶里 출토  
(韓國의 靑銅器文化)에서

#### IV. 結 論

이상으로 古代 帶鉤에 대하여 文獻과 古墳出土 品등을 중심으로 그 착용상태 및 樣式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革帶에 帶鉤를 다는 양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라시아 유목기마민족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특히 動物形 帶鉤는 학자들이 대표적인 스키타이계 문물로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분출토품에 나타난 帶鉤의 양식을 고찰해보면 초기 유라시아 스키타이계 帶鉤는 주로 瑞獸形을 사용하였으나 우리는 사실적인 동물(주로 馬, 虎)形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이같은 사실적인 동물형 帶鉤는 일본에도 傳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動物形 帶鉤와 함께 주로 낙랑 지역 古墳에서 출토되고 있는 棒形 帶鉤는 중국화된 帶鉤의 형태로서 前者에 비해 매우 단순화 된 양식으로 남쪽 지역에서도 그 출토예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과대류의 帶金具가 착용되기 이전에는 이 두종류의 帶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論文은 이제까지의 古墳出土品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고분출토품들이 나오면 계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帶鉤와 함께 과대류의 帶金具類의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東京: 中央公論社, 1967.
- 〈고고학자료집〉 제5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고고학자료집〉 제6집, 락랑구역일대의 고분 발굴보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국립부여박물관(편),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1993.
-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_\_\_\_\_, 〈韓國의 靑銅器文化〉, 서울: 汎友社, 1992.
-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 金文字,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1994.
- 金元龍,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宮殿壁畫의 使節圖”, 〈考古美術〉 第129, 130合號, 1976.
-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1 原始美術, 4 壁畫 서울: 同和出版社, 1980.
-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 司馬遼太郎, “古朝鮮의 成立”, 〈新潮古代美術館〉, 東京: 新潮社, 1980.
- 〈世界考古學大系〉, 제3卷, 1966, 제7卷, 1975, 동경: 平凡社.
- 林巳禁夫, 〈漢代之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1988.
- 영남대학교박물관(편), 〈박물관도록〉, 1982.
- 〈유적발굴보고〉 제5집,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1958.

- 河內良弘(譯注), 〈騎馬民族國家〉1, 東京: 東洋文庫, 1971.
- 韓炳三(編), 〈韓國文化財大系〉國寶2, 古墳金屬Ⅱ. 서울: 藝耕文化社, 1986.

## ABSTRACT

### A STUDY ON THE BUCKLE OF OUR COUNTRY IN THE ANCIENT TIMES

This thesis is to study the original form of Buckles of our country in ancient times.

On the upper garment bound the leather

belts that was hanged a hook that shaped of animal form at the end.

The background of Buckles was originated from those northern mounted normadic groups, which was Scythe style costume culture.

In Korea,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tombs bequests the styles of Buckles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horse-shaped, tiger-shaped, bar-shaped Buckle.

These styles were influenced by scythe style and developed greatly and trasmitted to Japan.